

“집앞에서 고수준 경기 볼 수 있어 눈 호강입니다”

—전국 피겨스케이팅 청소년 선수권대회 길림시에서



최근, 2024—2025 시즌 전국 피겨스케이팅 청소년 선수권대회가 길림시체육관에서 원만히 막을 내렸다.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국가 피겨스케이팅 등급 테스트 급별과 연령에 따라 갑·을·병 3개 조로 나뉘어 가운데 전국 49개 단위, 164

명의 선수가 출전했다. 경기는 남자단식, 여자단식, 페어(双人滑), 아이스댄스 등 4개 종목으로 나누었다. 종목별 출전 선수는 올 시즌 클럽 리그 총결선 청소년 고령조(高龄组)에서 1위—3위를 차지하기도 해 볼거

리가 넘쳤다. 그중 남자단식경기에서 리탁량, 랑준 두 실력 선수가 갑조에서 대결했으며 왕재유는 을조의 가장 큰 열점이었다. 여자단식경기에서 류옥훤은 갑조의 실력 담당이었고 을조와 병조에는 박

재안, 전목언, 리우함 등 잠재력이 높은 선수가 있었다. 페어경기에서 갈자진 / 란열, 풍림원 / 왕택 두 조합은 클럽 리그 대결에서 1위와 3위를 차지했는데 이번에 다시 맞붙었다. 아이스댄스경기는 클럽 리그 결승전 소년 고령조 1위—3위가 갑조에 모였고 국내 경기장에서 최근 몇년간 융솅음쳐나온 많은 꼬마 아이스댄스조합도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다. “집앞에서 이렇게 고수준의 경기를 볼 수 있어서 정말 눈 호강입니다.” 시민 허선생은 “저의 딸은 피겨스케이팅 애호가이자 학습자인데 현장에서 선수들의 높은 수준의 경기를 관람하면서 흥분에 들떠있었으며 언젠가는 자기도 국가 경기의 빙상장에 설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어요.”라고 말했다. 전국 피겨스케이팅 청소년 선수권대회는 중국피겨스케이팅협회에서 주최했다. 전국 피겨스케이팅 청소년 선수권대회는 중국 피겨스케이팅 청소년령역의 최고위급 경기로서 국가대표팀에 대량의 예비 인재를 제공해주었다. 이번에 참가한 선수중 이미 여러명이 국제대회에서 경험을 쌓았다. /강성일보

교하서 천여마리 동방백학 발견



일전, 교하 역내 송화호 상공에서 천여마리의 백색 새떼가 날개를 펴고 날고 있었다. 이렇게 많고 체류시간이 긴 새떼가 교하에 나타난 것은 보기 드문 일이다. 11월 5일, 교하시사진가협회의 사진애호가들이 교하시 신농가두 홍광촌에서 촬영할 때 송화호 상공에 규모가 방대한 백색 새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11월 11일, 교하시 하남가두 지수촌 부근에서 촬영할 때 제자 같은 새떼를 발견하였다. 이 새떼는 동방백학으로 1천여마리로 확인됐다. 동방백학은 국가 1급 보호동물로 ‘국보’급으로 불리는데 몸매가 아름답고 수량이 적어 주목을 받고 있다. 동방백학은 수질과 자연환경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다. /강성일보

섭금(涉禽)류에 속하는 동방백학은 수심 20-30 센티미터의 얇은 수역에서 생활하고 작은 물고기와 작은 새우를 먹이로 한다. 최근년간 교하시는 ‘수계련통, 수원함양, 수토보존을 추진하고 강과 호수의 생태환경을 소생시키자.’는 리념을 깊이있게 관찰하고 생태환경 정비와 복원 강도를 끊임없이 강화하여 각종 야생동물들에 량호한 서식과 번식 환경을 제공해주었다. “동방백학뿐만 아니라 우리 이곳에서 올해 11마리의 두루미가 겨울을 나고 있어요!” 신농가 두하촌의 58세 촌민 풍화당은 “지금은 이전엔 보지 못했던 새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이는 우리가 공동으로 환경을 보호한 결과”라고 말했다. /강성일보

길림시한국인 (상) 회 김치 담그기 행사 개최



주심양 한국총령사관 김창수 (앞줄 중간) 령사, 길림시한국인 (상) 회 김성윤 (앞줄 좌 1) 회장이 래빈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회원가족 오붓이 모여 웃음꽃 피우는 시간
- 현지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이웃의 정 나누는 시간

11월 17일, 길림시한국인 (상) 회는 길림시에서 김치 담그기 행사를 개최했다. 주심양 한국총령사관에서 주최하고 길림시한국인 (상) 회에서 주관한 이번 김치 담그기 행사에 길림시외사판공실, 북화대학교, 길림시 조선족중소학교, 길림시조선족기업가협회 등 길림시 사회각계 우호인사들과 주심양 한국총령사관 김창수 령사, 길림시한국인 (상) 회 회원 및 가족들이 참석했다. 길림시한국인 (상) 회 회장 김성윤은 김치 담그기 행사는 매년 연말 김장 담그는 계절에 맞춰 다년간 개최되

여왔으며 김치 담그기 행사를 통해 한국의 음식문화를 료해하고 김치 담그는 방법을 교류하며 김치 담그는 즐거움도 함께 나누면서 한중 량국간 이웃의 정을 돈독히 하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앞치마를 두르고 손수 김치 담그기 체험 및 시식을 했다.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주최측 인사들과 래빈들은 김치 담그는 방법을 교류하며 웃음꽃을 피웠다. 이번 김치 담그기 행사는 길림시조선족중학교 부근에 위치한 오두막조선족식당에서 장소를 협찬했다. /차영국기자



11월 14일, 기자가 길림시도로려객터미널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길림—유수 (榆树) 도시간 버스 T509선이 이미 개통되어 운영중이다. 알아본 데 따르면 이 로선은 길림역 서광장에서 출발하여 련화, 창읍구정부, 화학공업병원, 대구읍, 이갑, 애둔, 계하, 백기, 법특, 대파, 수수, 사간을 거쳐 유수시 려객터미

널에 도착한다. 전 구간 거리는 약 130 킬로메터로 약 두시간 반 동안 운행하며 전 구간 요금은 28 원이다. 버스는 쌍방향으로 운행되며 첫차는 아침 5시 반에 출발하고 막차는 오후 4시 반에 출발한다. 30 분마다 순환 발차하며 매일 약 42 회 운행한다. /송화강넷

[창업이야기]

화전 섭씨 부자의 인삼꿈

“성당위 12기 5차 전원회의에서는 인삼시장의 신용성실체계, 규범화 재배체계, 정밀가공산업체계, 브랜드 마케팅체계를 건전히 하는 등 인삼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구축할 것을 제기했는데 이는 인삼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대한 우리의 신심을 확고히 했다.” 추운 날씨와는 달리 길림릉태제약그룹 총령리 섭진우는 화색이 만만하다. 10월말, 화전시에 자리잡고 있는 룡태제약 인삼특용전시장에는 형태가 각기 다른 야생 인삼들이 진렬되어 생동감이 넘쳤다. 섭진우는 길림시에서 온 인삼산업발전시찰단에 “인삼은 보기에는 모두 똑같은 것 같지만 이 세상에 똑같은 인삼은 없다. 인삼시장은 늘 변화무쌍하다.”고 말했다. 섭진우가 인삼산업에 뛰어든 지도 21년이 됐다. 2003년, 그는 아버지 섭영지의 부름을 받고 상해에서 귀향, 부자가 어깨 견고 공동으로 창업하였다. “나는 그때 마침 해의 류학을 마치고 돌아왔는지라 나를 꿈을 가지고 있었대. 당시 고향 화전에 돌아가는 것이 내키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기업이 일떠세운 417헥타르의 인삼재배생태원을 참관시키면서 마음이 동했다.”고 섭진우는 말했다. 올해 71세인 섭영지는 다년간 인삼

산업의 발전을 추진하는 데 대한 의지가 독실했다. 1980년, 그는 고향의 특산물인 인삼을 좋아하게 되었고 이로부터 건강에 뿌리를 둔 창업의 꿈이 태동되었다. 그는 의연히 화전북대자중학교에서 시작하였다. 약재회사를 돌아다니며 민간에서 공급원을 찾고 인삼의 년도수, 품질가치 등을 평가 감정했다. 1983년, 그는 관련 사업체와 합작을 하고 1985년에 룡태인삼특용무역회사를 설립했는데 이는 화전의 첫 민영 인삼특용무역 경영업체로 된다. 1992년, 회사는 향향장강실업회사와 백만원이 넘는 정품 인삼 무역 계약을 체결했다. 한동안 그는 인삼공장 문도 나서지 않고 제품의 생산과 품질을 엄격히 감독했다. 그런데 향향에 보낸 샘플이 반환되었다. 돌아온 반응은 “제품은 인삼맛이 크지 않고 담배냄새가 매우 크다.”였다. 반품을 당한 후 섭영지는 향향에 가서 장강실업의 책임자를 직접 만났다. 한차례의 긴 담화로 그는 장사는 신의성실과 품질을 중시해야 하며 “덕을 닦는” 것을 첫차리에 놓아야 한다는 것을 깊이 체험하게 되었다. 고향에 돌아온 섭영지는 가장 빠른 시간내에 룡태인삼특용 브랜드 ‘영덕홍’을 출시하고 상품 율천을 다시 조직하고 국제 표준에 따라 가공을 진행하여 장강실

업과의 첫 무역 협력을 완수했다. 그의 책상에는 지금도 100여장 되는 환어음 계산서가 소장되어있는데 모두 ‘영덕홍’과 장강실업의 거래 증빙이다. 그해부터 여러해 동안 ‘영덕홍’과 장강실업의 년간 무역액은 1,000만원을 넘었다. 브랜드는 이 회사의 립업의 날개이고 품질은 립업의 근본이다. 섭영지는 ‘원천적으로 근본을 틀어쥐기’로 결심했다. 즉 화교향 천평촌 서산에 립지를 임대하여 생태원을 건설하고 생태원내에 천마리 규모의 룡장을 건설하였으며 야생 인삼을 재배하고 삼림 개구리를 방류하였다. “내가 처음 화전으로 돌아왔을 때는 바로 룡태의 고속 발전 시기였다. 향향, 오문, 대만과 동남아 등지의 시장은 모두 그때 개척했다.”고 섭진우는 말했다. 부자가 한마음이 된 데서 사업은 한단계 올라갔다. 섭영지, 섭진우는 인삼산업의 발전을 전망하고 화전시약재회사를 과단성있게 인수하였으며 길림시 한 약품공장의 제품 생산 허가번호를 사들여 룡태제약을 세웠다. 그들은 고급 인재를 영입하고 표준화 관리를 실시하여 제품 품질과 생산량을 안정적으로 향상시켰는데 현재 9개 종류에 60여가지 제품을 생산하고 연간 5,000톤의 중약재를 처리 및 가공

하고 있다. 미래 발전에 대해 섭진우는 신심으로 차념친다. 10년전 기업 투자로 전성 단일 최대 인삼자동항은창고를 건설하였는데 인삼 등 중약재 100톤을 장기간 저장할 수 있으며 현재 산삼 저장량은 20여만뿌리에 달한다. 생태원에는 현재 80여만뿌리의 야생 산삼이 있는데 그중 15년 이상 성장한 산삼이 10여만뿌리에 달한다. “인삼은 중화민족의 보물이자 길림성의 독특한 표지이다. 전 성 상하 전체 사슬이 인삼산업을 발전시키고 전 사회가 인삼에 관심을 갖는 분위기가 날로 농후해지고 있는 가운데 인삼산업은 반드시 새로운 봄을 맞이할 것이다!” 섭진우는 이렇게 말했다. 다음 단계에 그들은 전략적 협력 파트너를 유치하여 기술 개조를 통해 신질생산력을 육성, 발전시킴으로써 인삼 정밀가공의 새로운 장을 쓰게 된다. 기업이 경영하는 인삼밭을 거니는 섭진우의 눈에는 수학의 행복과 새로운 발전에 대한 갈망이 가득차있다. “아버지의 꿈은 룡태를 화전 첫 생산액 100억급 기업으로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현재 립하삼 재배에 적합한 땅이 2,000여헥타르 부족한 상황이다. 우리는 한창 전력을 다해 찾고 있다.” 섭진우는 이렇게 말했다. /송화강넷

농산물식품 대외판매창고 물류 플랫폼 마무리



일전, 길림시창하투자관리유한회사에서 건설하는 ‘농산물식품 대외 판매창고 물류 및 판매 서비스 플랫폼’ 프로젝트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이 프로젝트는 길림시 창읍구 화파창진에 위치, 총 투자액은 1억 2,600만 원, 총 용지면적은 2만 9,000평방메터로서 주로 창고, 랭장고, 건조센터, 중계고, 가공작업장, 전자상거래플랫폼, 스마트물

류종합서비스정보센터 등을 건설한다. 동시에 판매 서비스 플랫폼 및 부속 부대시설 건설도 포함된다. 프로젝트는 이미 토목건설 부분 공사량의 80%를 완수하였으며 11월 하순에 프로젝트의 모든 건설을 완수할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가 조업에 들어가면 년 836만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125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게 될 전망이다. /강성일보